

소매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영국의 daydress를 중심으로-

김 현 순

대구미래대학 패션디자인과

A Study on Formation of Sleeves -Centering around daydress in England -

Hyun-Soon Kim

Dept. of Fashion Design, Taegu Future College
(2000. 10. 5 투고)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onsider the formation of sleeves from the point of view that dress is one of expressive arts. The formative meaning of a sleeve and its chronological formation according to its formative changes as an evidence showing the internal changes of social culture were examined, centering around day dress of England in the 11th to 19th centuries. Then, sleeves were formatively classified and their aesthetic values were considered to help do formative, aesthetic expression of dress design in the present times. Literatures and references concerning the history of domestic and foreign dress were used as a method of stud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1. In the women's dress, the formation of the sleeve focuses on aesthetic decoration. This means that in the androcentric society the status of women are subordinate socioculturally.
2. Sleeves were classified into a fitted shape and a extension shape according to the aesthetic formation. The fitted shape expressed the beauty of body with emphasis on natural body, whereas the extension shape represented aesthetic expression of decoration.
3. The formation of a sleeve has influence on forming an image of dress by making the silhouette of dress natural or distorted, expresses the harmonious beauty of the whole dress, and produces the expressional beauty that gives a distinct characteristic to a dress.

Key Words : formation(조형성), decoration(장식성), sleeves(소매)
the fitted shape(밀착형), the extension shape(확장형)

I. 서론

복식은 인체를 바탕으로 한 각 부분들이 상호간에 연관성을 가지며 미적인 조화를 이루는 하나의 시각적인 조형예술이다. 즉, 복식이라는 대상의 형식 구조 속에 표현이라는 디자인의 객관적 법칙에서 얻어지는 조형미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조형은 실용적 조형과 미적 조형으로 크게 이분된다. 飯塚弘子 등¹⁾에 의하면 복식조형은 실용성과 심미성 모두가 요인이 되는 실용적 미적 조형에 속한다고 하였다. Flügel²⁾은 인간은 미적 욕구를 가지고 있어 복식의 기능적이고 실용적인 면보다는 장식성을 원했으며, 착의의 동기로서 장식성(Decoration)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장식성은 타인의 칭찬을 받기 위해 자신의 신체를 강화하고 신체적 외관을 미화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장식의 기능에는 사회집단에서 개인을 표시하는 사회적 역할과 장식을 통해서 심리적 만족을 얻는 심리적 역할이 있다. 사회적 역할에는 신분적 표시와 도덕, 의례적 표시가 속하고, 심리적 역할에는 자기현시, 우월감, 만족감 등이 속한다.³⁾

복식의 장식성은 디자인 원리에 의해 형식화된 조형미를 주며, 표현의 관점에서 그 형태의 의복이 갖는 입체감에 의한 조형은 중요한 미적 표현을 한다. 장식의 유형을 Ruskin⁴⁾은 유형학적관점에서 유기적 장식과 비유기적 장식으로 분류하였으며, 유형학의 개념과 장식유형의 분류를 기초로 하여 구미지⁵⁾는 복식에 접근한 연구를 하였다. 복식과 인체와의 관계를 보다 복식의 미적 조형성의 측면에서 보면, 바디스와 스커트 외에 의복을 완성시키기 위한 부분으로서 소매, 칼라 등과 같은 디테일한 부분의 미적 표현까지도 중요시하였다. 특히, 소매는 미적 표현을 완성시키기 위한 부가적인 장식요소로서의 역할이 컸다고 본다. 현대이전의 유럽 복식에서 소매는 복식전체에 보조적 혹은 지배적인 부분으로서 장식적인 변형이 끊임없이 나타났다.⁶⁾ 이러한 소매의 조형성은 의복 구성상 위치나 역할에서 볼 때 의복의 기능상 미관상 중요하므로 소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선행된 복식의 조형적 연구는 대부분 실루엣에 관한 연구들이었고, 소매

에 대한 연구가 없었기에 연구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복식이 표현예술이라는 관점에서 소매의 조형성을 살펴보기 위해 체형학적 관점과 복식의 형태론적 접근으로서 유형학적 관점에서 소매의 조형성을 분석하고 그 미적 가치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서 현대 복식 디자인의 조형적인 미적 표현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연구자료는 도시국가와 자본주의를 통해서 서부유럽의 기초를 확립하고 남녀복식의 구분이 생겼으며 셀 인(set-in) 소매의 형태로 정착된 11세기부터 19세기까지의 영국 day dress의 특징적인 복식을 중심으로 시대별로 고찰하고 분석하였다. 문헌자료로는 「Costume 1066-1966」⁷⁾를 1차 자료로 하였고 국내외 복식사적 문헌 자료들과 그림, 사진 등을 2차 자료로 하였다. 본 연구는 실물자료에 의한 연구가 아닌 복식사적 문헌자료를 통한 시대별 특징적인 복식을 중심으로 하였으므로 연구에 한계가 있다.

II. 소매의 조형적 고찰

1. 체형학적 관점

인체의 팔을 피복하는 원통형으로서 의복의 한 부분인 소매는 팔을 기준으로 복식조형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인체의 팔을 중심으로 한 고찰이 이루어져야 한다.

인체의 팔은 하나의 원통형으로서 체간의 좌우 양측에 체간과 경계되어 어깨, 팔꿈치, 손목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팔은 팔을 굽힐 때 팔꿈치에서 생기는 패인 곳을 지나는 팔꿈치선에 의해 상완과 전완으로 구분된다.⁸⁾ 일반적으로 소매는 정지상태에서 팔을 자연스럽게 내린 자세가 소매조형의 기본자세로서 중요하며, 이를 기준으로 소매조형의 기본형이 이루어진다. 체간부의 상부양측에 위치하는 소매는 물리적으로나 시각적으로 의복의 좌우균형에 크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미적 효과를 나타내는 데 크게 좌우된다.⁹⁾ 소매의 구성학적 측면에서는 팔을 위아래로 움직이거나 전후좌우로 움직이는 동작에 의한 그 연구범위가 넓다. 한편, 디자인측면에서는 바디스와 소매가 연결되는 다양한 방법과

구성상의 형태, 길이의 장단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하며 복식 전반의 조형미에 큰 영향을 미친다.

어깨는 체간과 팔과의 연결부로서 신체운동에서 제일 복잡한 영역이므로 의복구성상의 기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어깨는 의복을 지탱해 주는 구조선이 되는 부위로서 실루엣의 이미지를 좌우하며, 어깨넓이는 유행감각의 표현으로서 미적 효과를 표현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팔꿈치는 이상적인 체형에서 자연스런 허리선에 위치하며 팔의 경사각도를 정하는 부위이다. 일반적으로 미적 구성에서는 팔꿈치를 중심으로 해서 소매의 구조가 정해지며, 소매의 변화 또한 이 부위를 중심으로 한 것이 많다. 본 논문의 소매의 조형적 분류에서도 팔꿈치선을 기준으로 상완을 중심으로 한 소매 윗부분과 전완을 중심으로 한 소매 아랫부분으로 소매를 구분할 것이다. 손목은 자연스럽게 팔을 내렸을 때 엉덩이의 위치에 오며, 소매의 길이를 정하는 부위가 된다. 미적 구성에 있어서는 커프스나 프릴을 붙여서 장식적으로 다루는 경우가 많다. 또한, 팔꿈치에서 손목의 전완부분의 움직임에 의해 복식 전체에 리듬을 부여하는 데 효과적이며 심리적 표현효과를 나타낸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볼 때, 소매는 기능성과 장식성을 겸비한 기능적 미적 조형성을 가져야 한다.

2. 유형학적 관점

유형(type)은 반복성과 개별성으로 자체의 성격을 지니며 한 그룹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는 구조적 체계개념으로서 정의되며, 반복성은 작품자체의 본질적인 원리를 의미하고 개별성은 작품이 갖는 고유한 예술적인 경향을 의미한다.¹⁰⁾ 또한 유형은 사적 고찰에서 추출되나 그대로의 복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변화를 전제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새로운 유형은 사회적 변화에 따라 결정되며 그 사회구조를 벗어나서는 성립되지 않는다. 이러한 유형적 변화는 사회구조와 상호연관성을 가지며 복식의 유형변화에도 접근하여 조형성을 고찰할 수 있다.

유형의 개념은 형태를 분류하는 수단으로서 같은

형태구조를 갖는 사물의 그룹을 묘사하는 개념과 유형변화와 그 발전과정을 내적 구조로 보는 관점에서의 개념으로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이 두 개념은 상호보완적이어야 한다.

Russian은 장식적 형태의 미적 근본을 자연적 형상과의 유사성에서 찾고, 건축분야에서 장식의 유형을 4가지로 분류하였다.¹¹⁾ 첫째, 건축물 상부에 부가되는 독립적인 부조로서 추상적인 형태가 아닌 완전한 형태를 갖춘 것으로 유기적 형태의 장식이다. 둘째, 건축물 하부에 부가되는 부조에서 나타나는 것으로서 보다 단순화된 형태의 유기적인 형태와 유사한 장식이다. 셋째, 외곽선만으로 표현되어 형태가 단순화된 것으로 유기적인 형태가 외곽선으로 추상화된 장식이다. 넷째, 다양한 채색의 기하학적인 패턴이나 구름무늬 등을 사용한 형태로 비유기적인 장식이다. 즉, 장식의 유형은 유기적인 형태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그 정도의 차이에 따라 구분한 것으로 유기적인 형태를 잃은 것을 비유기적인 형태로 정의하였다. 즉, Ruskin은 형태를 이루는 외곽선과 내부의 장식 등을 포함한 구조물의 특징과 부가된 장식의 특성에 따라 장식의 유형을 유기적인 유형과 비유기적인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장식유형의 유기적인 속성에는 추상적이 아닌 사실적인 것이 속하고, 비유기적인 속성에는 추상화된 장식과 단순화된 형태가 속한다.

구미지¹²⁾는 Russian의 유형학적 관점에서 장식의 유형을 복식과 연관하여 기본적인 구조인 신체와의 관계성과 실루엣, 무늬 등과 비교될 수 있다고 하였다. 신체와의 관계에서는 복식우선형을 유기적 장식유형으로, 인체우선형을 비유기적 장식유형으로 정의하였다.

Ⅲ. 소매의 조형적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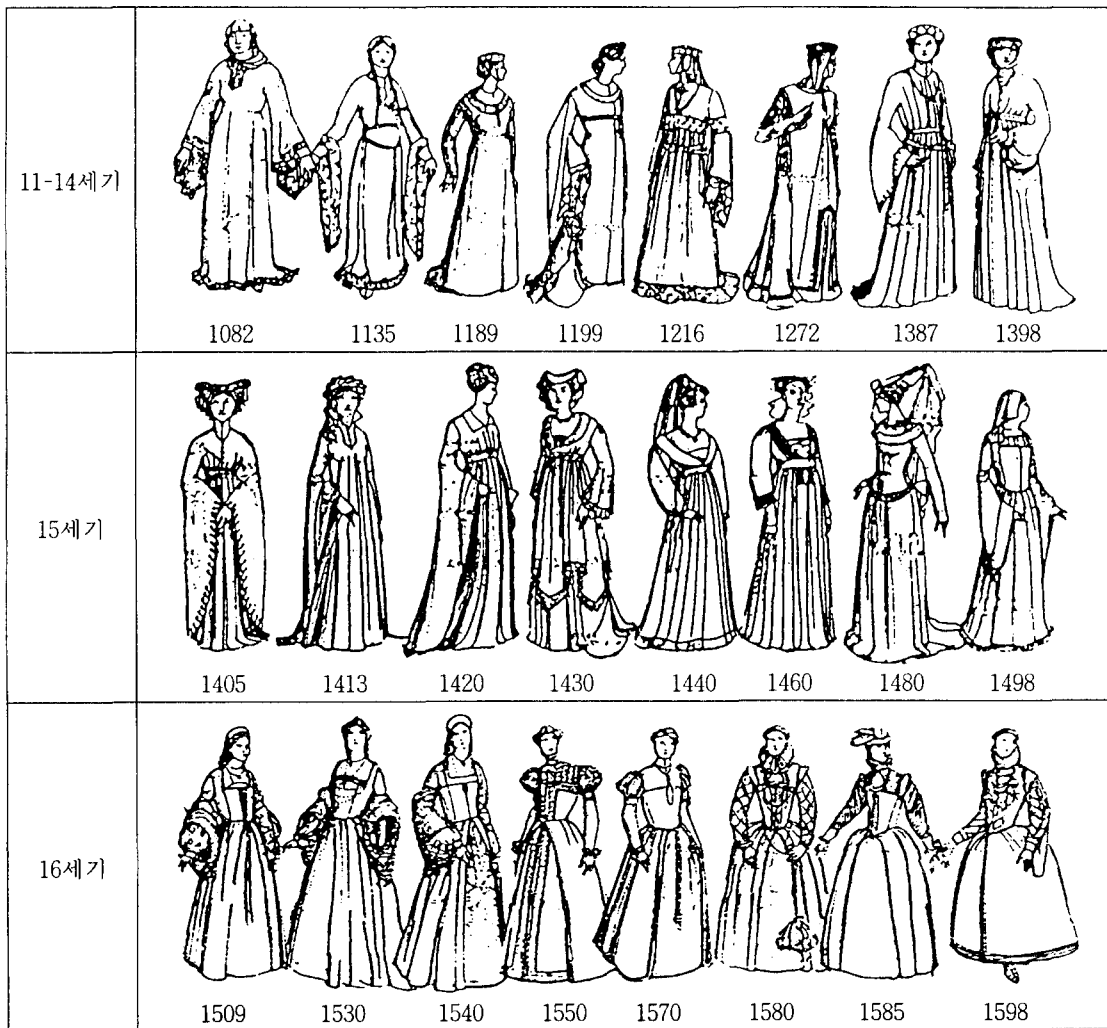
복식은 역사적, 사회적 배경에 제약을 받으며 복식의 전통과 유행으로 나타난다.¹³⁾ 전통은 복식의 형식을 고정화하고 유행은 복식의 양식을 변화시키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경제, 종교, 정치 등의 요소가 관련되어 있다. 즉, 역사성을 가지고 사회문화를 생산해 내는 사회 속에서 생활하는 인간은 이러한

계약에서 벗어날 순 없다. 계급사회에서의 유행은 상류사회에서 볼 수 있으며 특히, 프랑스혁명 전까지는 영국의 복식, 건축, 예술 전반에 걸쳐 귀족사회에 있어서 영국의 유행이 현저하게 나타났다.¹⁴⁾ 이러한 사회적 견지에서 영국의 시대적 변화에 따른 소매의 조형적 변천은 복식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영국의 시대적 변화에 따른 대표적인 소매의 조형적 변천을 「Costume 1066-1966」¹⁵⁾을 근거로 <그림 1>과 <그림 2>에 나타내었다.

1. 11세기 - 14세기

미, 균형, 단순성에 기초한 고딕시대로 전반적인 패션의 흐름은 인체에 대한 이해를 주름잡힌 직물의 드레이프에 의한 미적 표현으로 소매 가장자리의 유연함을 강조했다.¹⁶⁾ 즉, 팔꿈치에서부터 넓어지는 느슨한 주름의 길게 늘어뜨린 소매의 드레이프의 표현성은 제한된 동작성을 상징한다. 이것은 종속적인 여성의 지위로 인한 여성복이 비활동적이었음을 암시한다. 고딕의 절정기인 13세기 중반까지는 무릎까지 길게 늘어뜨린 주름잡힌 소매의 외



<그림 1> 소매의 조형적 변천, 11-16세기
(Costume 1066-1966)



<그림 2> 소매의 조형적 변천, 17-19세기
(Costume 1066-1966)

곽선으로 여성의 우아함과 품위를 표현했다. 이러한 드레이프형의 소매에서 13세기말에는 인체에 맞는 셸 인(set-in) 소매로 발전하는 새로운 소매형태가 나타나 현대 소매의 기원이 된다.(그림 1) 팔꿈치부위에서부터 단추로 고정시켜 손등을 덮는 타이트한 긴소매는 인체의 곡선을 그대로 드러내는 소매로 인체의 자연미를 강조하였다.¹⁷⁾(그림 3) 1350년에서 1380년에는 주로 팔꿈치에서 모피나 실크로 선장식을 한 티벳(tippet)을 무릎까지 길게 늘어뜨



<그림 3> 타이트한 소매, 1315년
(20,000 years of fashion, 204)

렸다.¹⁸⁾ 14세기말에는 백파이프(bagpipe) 소매가 유행하였다.¹⁹⁾(그림 1, 1398년) (그림 4)

이와 같이 14세기까지의 소매는 고딕형태의 단순한 실루엣에 풍부한 주름의 드레이프형 소매로 복식에 장식적 표현미를 나타내었다.



<그림 4> 14세기말-15세기초의 소매유형
(20,000 years of fashion, 179)

2. 15세기

15세기의 여성은 수동적인 삶에 의해 사회 경제적 특권을 많이 잃었으나 새로운 복식형을 제시하고 여성과 남성의 구분이 뚜렷해지면서 빠른 패션 변화를 나타내었다.²⁰⁾ 서양 복식에 많은 영향을 미친 소매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별된다. 첫째는 옆모양이 곡선으로 떨어지며 소매 가장자리를 뒤로 접어 올리고 모피장식이나 다른 배색에 의한 넓은 커프스가 달린 형태이다. 둘째는 어깨에서 손목까지 딱 붙으나 팔꿈치 아래의 소매 뒤를 slash하여 끈으로 팔에 고정시킨 형태이다.²¹⁾(그림 5) 15세기 초에는 소매의 가장자리를 옆모양으로 장식하고 소매의 뒤를 길게 늘어뜨린 벨(bell)형 소매가 유행했고,²²⁾(그림 1, 1405년) 1420년대까지 넓은 편널(funnel) 소매²³⁾는 다른 배색의 안감을 대어 손목에서 소매를 뒤로 접은 형태가 유행했다.²⁴⁾(그림 1, 1420년) 또한 장식적인 행인(hanging) 소매는 주로 축제 기간의 복식으로 착용되었다. 1440년경에는 소매길이가 손목까지로 짧아지면서 일자(straight) 소매와 7부 소매를 착용했다.(그림 1, 1460년) 15세기말인 헨리 7세의 기간에는 다시 편널 소매가 나타났다.²⁵⁾

이와 같이 15세기에는 소매의 길이가 짧아진 일



<그림 5> 팔꿈치에 slash한 소매, 15세기 후반
(20,000 years of fashion, 213)

자소매와 타이트 소매가 나타나면서 복식의 중심이 허리로 옮겨짐을 알 수 있다.

3. 16세기

1485년부터 1603년까지는 Tudor왕조가 영국의 통치권을 가지면서 복식의 소매형태에 현저한 변화를 가져왔다.²⁶⁾ 16세기는 인간중심주의적 르네상스 문화의 영향으로 인간에 대한 자각과 인간의 환경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였다.²⁷⁾ 뚜렷한 남녀 성차에 의한 인간미를 강조하였으며 패드를 넣은 소매형태와 무거운 소재나 모피의 장식으로 소매를 왜곡시킨 형태가 이 시대의 특징이다.²⁸⁾ 왜곡된 소매형태는 각 부분들을 따로 구성하여 결합시킴으로서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는 의복유형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 시대의 대표적인 소매는 패드를 넣은 퍼프소매로 다양한 실루엣을 형성하는 커다란 변화를 가져와 의상이 더욱 화려해지고 인위적이게 되었다. 헨리 8세 때의 복식에서 소매는 자수와 보석의 과다한 장식을 한 언더슬리브가 팔꿈치아래에서 보이며 그 위에 또 하나의 모피나 벨벳으로 만든 벨형의 소매(그림 1, 1509년)를 붙여²⁹⁾ 그 사이즈를 과대하게 하며 소매를 강조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드레스와 같은 소재의 행인(hanging) 소매와 함께 허리선과의 대조된 실루엣을 형성하였다. 소매가 거대해지자 구성과 착용에 불편함이 있어 1540년경부터 소매를 따로 분리시켜 재단하였으며, 드레스

에 새로운 변화를 주기 위해 드레스 한 개에 여러 종류의 소매를 준비해 두기도 하였다. 이는 다양하고 개성적인 형태미를 표현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550년경(엘리자베스여왕 1세)부터는 어깨에 패드를 넣거나 슬래쉬 장식을 한 퍼프(puff) 소매가 나타났다.(그림 1, 1550) 팔꿈치에서 손목까지 패드된 소매는 손목에 붙는 형태로 되었으며³⁰⁾ 소매의 끝 가장자리에는 작은 레이스의 러플 장식을 했다. 1580년부터는 상완부분에 패드나 심을 넣은 레그 오브 머튼(leg-of-mutton) 소매³¹⁾(그림 1, 1580년)와 어깨에서 길게 늘어뜨린 가짜소매인 행인 소매(hanging sleeve)³²⁾, 그리고 커프스가 있는 긴소매가 나타났다.³³⁾ 또한, 소매의 과대한 장식으로 인해 바디스와 소매가 연결되는 부분을 가리기 위해 윙(wing)으로 장식하였다.

이와 같이 16세기의 패드된 퍼프 소매는 복식의 중심이 상체로 이동하고 소매에 과다한 장식성을 부여함을 알 수 있다.

4. 17세기

Stuart 왕조의 시기로 바로크의 장중하고 조화롭게 전개된 근대적 인간의 자각이 나타난다.³⁴⁾ 다른 세기와는 달리 여성복에 남성적인 면과 자연스러운 실루엣을 형성한다. 17세기의 소매는 패드로 크게 부풀리거나 슬래쉬 장식을 하고 여러 층으로 된 레이스의 러플장식이 풍성하게 사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17세기의 소매는 1630년대, 1660년대, 1680년대로 구분된다. 17세기초는 16세기와 같은 방법으로 소매에 패드를 넣거나 1630년경(찰스 1세)부터는 팔꿈치 길이의 퍼프 소매에 슬래쉬된 사이로 흰 속옷이 보였으며, 소매를 리본으로 오므리면서 소매의 끝에 레이스의 러플 장식이나 한 두 겹의 레이스를 커프스에 달아 부드럽고 풍성한 소매형태로 나타났다.³⁵⁾(그림 6) 1660년경까지는 전 시대와는 달리 소매의 어깨선이 낮아졌으며 전체적으로 풍성하고 부드러워진 뽀롱(ballon) 소매와 짧고 풍성한 멜론 소매(melon sleeve)³⁶⁾에 언더드레스의 풍성한 레이스의 소매를 리본으로 묶은 일종의 비라고 소매(virago sleeve)³⁷⁾(그림 2, 1640년)는 여성복의 새



<그림 6> 리본과 러플 장식의 소매, 1630년
(20,000 years of fashion, 272)

로운 모드를 형성하였다. 1650년대에는 어깨선이 내려오고 소매의 퍼프 위치가 점점 낮아져 소매의 윗부분은 딱 붙고 팔꿈치에서 퍼프된 소매형태를 이루었다. 1660년경(찰스 2세)에는 전시대와는 달리 타이트한 7부 소매에 뒤로 접힌 커프스가 달린 소매가 나타났다. 그러나 다시 제임스 2세 때인 1680년대부터는 딱 붙는 짧은 소매 끝에 여러 층으로 된 레이스의 러플 장식의 소매가 유행하였다.³⁸⁾(그림 2, 1690년)

이와 같이 17세기의 소매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으며 커프스의 형태와 소매 끝에 레이스의 러플 장식한 소매형태로 소매에 리듬감과 장식성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5. 18세기

Gorgian 왕조의 시대로 인간의 감성에 의한 정서를 표현하는 섬세하고 기교에 뛰어난 로코코양식을 반영한다.³⁹⁾ 소매는 17세기에 비해 풍성함이 사라지고 팔에 적당히 맞고 팔꿈치 길이의 소매아래에는 캡이나 바디스의 레이스와 같은 것으로 사용한 레이스나 리본 등으로 장식된 소매가 유행했다. 18세기초에는 짧은 소매에 커프스가 있고 레이스의 러플 장식을 하였다. 1730년대의 소매는 팔꿈치까지는 딱 붙으며 리본과 소매 끝에 부드러운 레이스의 러플 장식을 한 소매가 유행했다.(그림 7) 1750년대부터는 팔꿈치까지 붙는 좁은 소매에 부드러운

색조의 리본이나 꽃 장식을 하여 액센트를 주었다.⁴⁰⁾ 팔꿈치부터 여러 겹으로 붙인 풍부한 레이스의 러플 소매는 가냘픈 여성미를 강조하고, 미적 감각의 세련된 곡선미로 낭만적이며 우아한 여성의 성적매력을 표현하였다. 17세기말인 집정기에는 소매 가장자리의 러플 장식이 작아지고 소매형태가 짧아지거나 소매가 없어지면서 장식성이 사라지며 단순하고 절제된 복식이 나타났다.



<그림 7> 여러 겹의 러플 장식의 소매, 1760년
(20.000 years of fashion, 311)

이와 같이 18세기의 다양한 레이스로 러플 장식을 한 소매형태는 우아한 곡선의 사용으로 부드럽고 유연한 여성미를 표현하고, 가벼운 울동감이 넘치는 여성적인 자태의 조형미를 강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6. 19세기

19세기초의 여성은 육체적으로 무력해 보일수록 사회적 지위가 높은 상류층으로 간주되었다. 옅은 파스텔 색상의 얇고 부드러운 소재의 여성복은 여성을 무기력하고 미성숙한 여성으로 보이게 했으며 팔을 노출시킨 짧은 소매는 연약한 여성상을 상징했다. 이는 고전주의의 매우 단순화된 복식으로 인간의 자연적 모습을 중시하는 인체의 자연미를 표현한 것으로서 짧은 퍼프 소매에 팔이 노출시키거나 좁고 긴소매형태는 성적매력을 표현한다. 1805년부터 소매는 단순한 복식형태에 변화를 주는 주요 부분으로 다양한 디자인이 전개된다. 남성의 존속된 존재로 부유한 남성들의 경제적, 성적 능력을

과시하는 징표처럼 인식되어 복식은 다시 불편하게 되었다.⁴¹⁾ 1810년에는 어깨가 넓어지는 퍼프 소매가 다시 유행했고(그림 8), 1820년에는 소매에 주름을 잡아 부풀린 벌룬 소매(ballon sleeve)가 유행되면서 허리가 더욱 강조되었다.(그림 9) 1825년이 되자 충전물을 넣은 소매 위에 비치는사를 사용한 한장의 소매를 덧붙였다.⁴²⁾(그림 10) 또한, 17세기의 낮아진 어깨선에 과장되게 부풀린 드롭드 퍼프(dropped puff) 소매(그림 2, 1830년)가 다시 유행했고, 1830년 이후는 어깨가 점점 넓어지고 소매의 윗부분의 퍼프는 기교적으로 부풀려진 풀(full) 소매(그림 11)와 레그 오브 머튼 소매가 유행했다.⁴³⁾ 이로 인해 여성의 신체는 다시 은폐되었다. 1840년부터 풍성하게 부풀렸던 소매의 형태가 차츰 팔에 붙는 일자소매로 되었다가 다시 1850년에는 진동이 커지고 팔꿈치 아래에서 소매가 넓어지는 파고다



<그림 8> 퍼프소매, 1824년
(Historic Costume, 278)



<그림 9> 벌룬소매, 1831년
(Costume & Fashion, 1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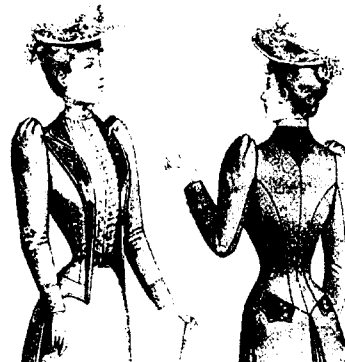
<그림 10> 샤를 덧붙인 소매, 1829년
(Costume & Fashion, 164)



<그림 12> 코트 소매, 1874년
(20.000 years of fashion, 389)



<그림 11> 폴 소매, 1829년
(20.000 years of fashion, 351)



<그림 13> 레그 오브 머튼 소매, 1829년
(20.000 years of fashion, 400)

(pagoda) 소매(그림 2, 1860년)와 단추로 고정하는 커프스가 달린 풀 비숍(full bishop) 소매가 유행되었다.⁴¹⁾ 1870년에는 여성의 사회진출로 신체적인 자유를 부여하는 활동성을 인식한 여성복의 소매는 타이트한 코트(coat) 소매에 레이스 주름장식의 넓은 커프스가 유행했다.(그림 12) 그러나 1893년경부터는 하의가 단순해지자 복식의 중심이 상체로 이동하면서 다시 소매 위가 약간 퍼프된 소매형태로 재현되었다. 처음에는 레그 오브 머튼 소매(그림 13)가 유행되다가 1895년에는 소매를 크게 부풀린 지고(gigot) 소매(그림 14)가 유행했고 다양한 소매의 디자인이 의상에 집중되었다.

이와 같이 여성의 사회적 활동으로 인해 기능적이고 활동적인 의복이 요구되는 19세기말을 계기로 소매의 다양한 조형적 변화는 과거의 거대한 소매



<그림 14> 지고 소매, 1895
(20.000 years of fashion, 397)

형태에서 축소된 심플하고 현대적인 소매형태로 이루어졌다.

이상과 같이 여성복식에 있어서 다양한 소매형태

는 각 시대 복식의 이미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미적 효과를 나타내는 장식적인 조형성을 갖는다.

Ⅲ. 소매의 조형성

소매의 미적 측면에서 소매에 대한 조형성을 살펴보기 위해 형태를 분류하는 수단으로서 유형학적 관점⁴⁵⁾⁴⁶⁾에서 소매의 조형성을 연구하였다. 소매는 팔을 피복하는 것으로서 인체와 의복사이에 여유분이 생기게 되며 소매 디자인의 조형적 변화에 따라 이 여유분의 범위는 다르다. 소매의 조형적 변화를 시대적으로 고찰한 후 분석한 결과, 팔의 형태를 자연스럽게 표현한 밀착형 소매와 인위적으로 확장시킨 확장형 소매로 대별된다.

1. 밀착형 소매

밀착형 소매는 팔의 자연스런 형태미를 그대로 표현하거나 여유가 적은 기본적인 소매형으로 장식적인 요소가 거의 없다. 대부분 타이트한 소매나 일자형의 스트레이트 소매로서 소매길이에 따라 긴소매, 7부 소매, 반소매 형태이다.

13세기 중반의 타이트 소매는 소매통을 단추로 고정하고 손등이 가려질 정도의 긴 소매(그림 1, 1272년)로서 팔의 곡선미를 강조한 특이한 형태이다. 15세기 중반의 팔꿈치 길이의 일자소매(그림 1, 1460년)와 손목을 덮는 타이트 소매(그림 1, 1480년), 1660년대의 팔꿈치길이의 스트레이트한 단순한 소매형(그림2, 1660년), 버슬시기(1878년-1883년)의 어깨에 주름이 없고 팔에 딱 맞는 코트(coat) 소매(그림 2, 1875년) 등이 밀착형 소매이다.

이와 같이 밀착형의 소매는 자연스런 인체형을 강조한 미적 표현으로 팔의 장식요소들을 최소화하고 단순화함으로써 인체곡선을 강조한 것으로 젊음을 연상시키고⁴⁷⁾, 디테일적인 장식의 요소보다는 단순화된 소매형태로서 단지 소매의 길이변화와 커프스의 유무로 자연적인 신체를 드러내는 비유기적인 장식유형에 속하는 직선적인 조형성을 표현한다. 즉, 밀착형 소매는 자연미를 표현한 것으로 주로 극도로 과장된 장식의 소매형 뒤에 나타나고 인

체의 자연미와 젊음을 상징하는 비유기적인 미적 조형이다.

2. 확장형 소매

확장형 소매는 인체의 팔과 의복간에 많은 여유분을 주어 소매의 외곽선을 확장시킨 소매형으로 소매전체가 확장된 전체확장형과 소매의 일부만 확장된 부분확장형으로 구분되며, 그 확장된 정도와 위치에 따라 다양한 소매형태가 형성된다. 이는 거대한 패드와 슬래쉬, 보석장식 등의 기교적인 장식에 의해 신체를 확대시키고 과장하여 소매를 강조한 유기적 미적 조형이며 신체동작을 제약한다. 이것은 우아함을 나타내는 미적 표현이며 비활동적인 사회적 신분과 권위를 상징한다. 확장형 소매는 가는 허리와 대조를 이루고 의복에 수평구조를 형성한다. 이것은 세부구성선에 의한 복식 전체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전체적인 조화미를 표현한다.

1) 전체확장형 소매

전체확장형 소매는 소매전체가 확장된 형으로 주로 퍼프(puff) 소매형에서 변형된다. 1550년의 퍼프소매(그림 1, 1550년)가 소개되면서 의복의 중심이 상체로 이동하였다. 1640년경의 거대한 퍼프를 가진 벌룬(ballon) 소매(그림 2, 1640년)는 어깨선이 내려가고 허리에서 그 확장이 끝나며 의복의 중심이 허리로 이동함을 의미한다. 이것은 소매의 확장된 위치에 따라 의복의 중심이 이동함을 알 수 있다. 또한, 19세기초의 짧은 퍼프 소매(그림 2, 1810년)와 1830년대 이후의 풍부한 주름의 거대한 풀(full) 소매는 연약한 여성상을 상징하며 로맨틱한 이미지를 형성한다.

전체확장형 소매는 기본소매에서 확장시킨 것으로 거대하게 과장된 소매를 강조하는 유기적인 장식유형이며, 축소된 허리사이즈와는 강한 대조를 이룬다.

2) 부분확장형 소매

부분확장형은 팔꿈치선을 기준으로 팔꿈치 위에서 확장된 소매 윗부분의 확장형과 팔꿈치 아래에

서 확장된 소매 아랫부분의 확장형으로 나눈다.

(1) 소매 윗부분의 확장형

소매산 부분을 확장시킨 형태로 대표적인 소매는 레그 오브 머튼(leg of mutton) 소매⁴⁸⁾이다. 레그 오브 머튼 소매는 16세기에 처음 소개되어 19세기에 재현되었다.(그림 2, 1890년) 1880년대 후반의 소매산이 거대하게 확장된 소매와 팔꿈치까지 거대하게 확장된 지고(gigot) 소매는 여성에게 있어 작은 손이 매력의 포인트⁴⁹⁾였던 것을 더욱 강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소매 윗부분의 확장형은 Delong⁵⁰⁾의 공간개념에서 보면 명확한 가장자리를 갖는 패쇄형이다. 소매 윗부분의 확장형의 미학적 결점은 전체의상에서 소매의 윗부분이 너무 무겁게 표현되었고 인체를 수평적으로 확장되어 보이게 하지만, 허리사이즈를 축소되어 보이게 하는 미적 효과가 있다. 이것은 복식에 강한 이미지를 형성하고 여성의 성숙함을 상징한다. 또한 소매와의 연결부분의 경계가 드러나지 않게 한 미학적인 섬세함과 세련미가 나타난다. 소매 윗부분의 확장형은 유기적인 장식 유형이며 시각적 작용에 의해 손목의 형태를 조형적으로 감소시킨 동시에 어깨부분을 강조하게 하고 수평적으로 연장시켜 복식에 안정감을 더해 주는 미적 조형성을 갖는다.

(2) 소매 아랫부분의 확장형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에 걸친 일반적인 드레스는 팔꿈치에서 손목까지의 소매아랫부분의 확장형으로 기능성보다는 장식성에 큰 비중을 둔 것으로 동작성의 제약이 따른다. 인체와 의복사이의 여유가 많으면 많을 수록 동작에 많은 지장을 주고 커프스나 프릴에 의해 장식성을 강화시킨다. 소매아랫부분의 확장형은 대부분 주름 잡힌 느슨한 드레이프에 의해 자연스런 선이 표현되는 유기적인 장식유형이다.

소매아랫부분의 확장형을 수구가 막힌 패쇄형과 수구가 열린 개방형으로 분류한다. 수구가 막힌 패쇄형은 커프스에 의해 손목에서 주름분량을 모아준 형태로 14세기말의 백파이프 소매(그림 1, 1398년)와 16세기의 소매아래에 퍼프를 넣어 과장된 소매(그림 1, 1509년) 그리고 19세기의 비숍 소매(그림 2, 1840) 등을 들 수 있다. 소매수구가 열린 개방형

은 11세기부터 계속적으로 나타난 늘어뜨린 소매(the pendulous sleeve)로 15세기의 펜넬 소매(그림 1, 1413), 18세기의 어깨가 좁고 팔꿈치와 손목 끝이 점점 넓어진 벨형 소매, 손목에서 넓게되어 앞이 짧고 뒤가 더 길어진 파고다 소매, 7부 소매의 가장자리에 여러 단의 러플 장식의 소매 등이다. 펜넬 소매와 같은 늘어뜨린 소매는 드레이프하게 표현되는 자연스런 형태미가 나타나며, 여러 겹의 레이스의 러플장식으로 곡선 처리된 소매는 화사한 느낌을 주고 유동적인 조형미를 표현한다.

소매 아랫부분의 확장형 소매는 실루엣을 매우 수직적으로 보이게 하며 소매 아랫부분이 길게 늘어뜨려져 있어 팔의 동작성에 따른 유동미가 표현되고, 레이스의 러플이나 리본 등의 트리밍 장식에 의한 유기적인 장식유형으로 곡선적인 조형미를 표현한다. 또한, 소재에 따라서 복식의 이미지가 다르게 표현된다. 가벼운 소재가 갖는 유기적인 형의 반복에 의한 유동적인 효과는 흥분⁵¹⁾을 연상시키고 가벼운 유동미에 의해 여성적이고 로맨틱한 이미지를 표현하나, 무거운 소재는 권위와 위엄을 강화시킨다.

IV. 결 론

소매는 의복의 한 부분으로서 복식을 특징짓는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특히, 소매의 조형성은 기능성보다는 장식성을 강조한 미학적인 표현성에 더 중점을 둔다. 11세기에서 19세기까지의 영국복식에 나타난 소매의 형태는 복식 조형에서 자유로운 움직임에 방해하는 다소 정적인 부분으로 취급되었고, 팔과 손에 성적 매력을 표현하는 미학적인 문제를 야기 시켰다. 또한, 소매는 팔에 의한 그 동작성에 의해 노동을 상징하는 것이므로 착용자의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를 나타내는 사회적 심리적 역할을 하며, 많은 장식에 의한 표현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미적 조형으로서 소매는 표현상의 사회적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장식성을 부여하고 여성적인 매력을 표현하였다.

소매의 조형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복식에 있어서 소매의 조형성은 장식

성에 중점을 둔 미적 조형이었다.

남성지배사회에서 사회 문화적으로 종속된 여성의 지위를 단적으로 상징한 것으로 여성들은 종속된 삶에 의해 자기과시의 경향이 강해지고 남성보다 강한 성적매력을 표현하려는 심리적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 즉, 소매에 장식성을 부여하게 되어 인체를 더욱 오피하고 왜곡한다. 이것은 권위나 위엄을 상징하거나 여성적인 우아함을 표현하는 사회, 심리적인 미적 조형이다.

둘째, 소매의 미적 조형성에 따라 밀착형 소매와 확장형 소매로 분류되었다.

밀착형 소매는 자연스런 인체를 강조하는 인체미의 표현으로 비유기적인 장식유형이며 직선적인 조형미를 이루는 반면, 확장형 소매는 장식에 의해 복식을 강조한 것으로 인체를 과장되게 하거나 왜곡되게 표현하여 여성의 우아함과 로맨틱한 이미지를 표현하고 유기적인 장식유형으로 곡선적인 조형미를 갖는다. 또한, 확장형 소매를 전체확장형 소매와 부분확장형 소매로 구분되고, 전체확장형 소매는 퍼프 소매의 변형으로 그 크기의 대소에 따라 달라졌다. 부분확장형 소매에는 소매 윗부분의 확장형과 소매 아랫부분의 확장형으로 분류되었고, 소매 윗부분의 확장형은 대부분 레그 오브 머튼 소매형의 변형이다. 소매 아랫부분의 확장형은 시각적인 확장으로 유도되어 폐쇄형과 개방형으로 나뉜다.

셋째, 소매의 조형성은 실루엣을 자연스럽게 또는 왜곡되게 함으로서 복식의 전체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 복식에 뚜렷한 특징을 짓는 표현미가 나타난다.

이상으로 소매의 조형성은 복식의 미적 표현에 있어 중요하며, 현대 복식에 있어 디자인의 차별화를 위한 소매의 다양한 디자인 개발과 전개가 요구됨에 따라 여기에 대한 연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및 미주

· Francois Boucher, 20,000 Years of Fashion, Expanded Edition, 1987.

- 1) 飯塚弘子の2, 복장디자인론, 문화출판국, 1999, p.14.
- 2) J.C. Flügel, The Psychology of Clothes, The International Psycho-Analytical Library No. 18, The Hogarth Press and The Institute of Psycho-Analysis, 1950, pp.15-24.
- 3) 정옥임, 인체와 의복, 수학사, 1989, p.14.
- 4) 정태용, 현대건축에서의 유형개념 및 유형학적 접근방식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88, pp.32-37.
- 5) 구미지, 러스킨의 장식유형분류를 사용한 19세기 복식장식의 유형학적 해석, 한국의류학회지,16(3), 1992, pp.315-323.
- 6) 조규화, 복식미학, 수학사, 1989, p.126.
- 7) John Peacock, Costume 1066-1966, Thames & Hudson, Inc., 1988.
- 8) 정옥임, op. cit., p.63.
- 9) 강선자, 복식디자인, 형설출판사, 1981, p.108.
- 10) 정태용, op. cit.
- 11) 정철영 역, 서양건축사, 세진사, 1990.
- 12) 구미지, op. cit.
- 13) 被服造形學, 中선 朝子, 光生館, 1973, p.79.
- 14) Doreen Yarwood, Outline of English Costume, Plays Inc., 1967, p.22.
- 15) John Peacock, Costume 1066-1966, Thames & Hudson, Inc., 1988.
- 16) Douglas A. Russell, Costume History and Style, Prentice-Hall, Inc., 1983, p.138.
- 17) James Lever, Costume & Fashion, Revised Edition, 1995, pp.63-64.
- 18) Mary Evans, Costume throughout the ages, J.B. Lippincott company, 1950, p.124.
- 19) Ibid., p.127.
팔꿈치에서 통성하며 점차적으로 손목에서 좁아져 넓은 커프스나 간단한 밴드에 의해 주름이 모아진 소매 형태.
- 20) Phyllis Torpor, Survey of Historic costume, Second Edition, 1994, p.127.
- 21) Ibid., p.145.
- 22) Douglas A. Russell, op. cit., p.154.
- 23) Charlotte mankey Calasibetta, Fairchild's Dictionary of Fashion fashion, 2nd Edition, p522.
손목 부위에서 넓어진 소매 형태.
- 24) Phyllis Tortora, op. cit., p.119.
- 25) Mary Evans, op. cit., p.135.
- 26) Doreen Barwood, op. cit., p.10.
- 27) 세계문화사, 효성여자대학 출판부, 1987, p. 177.
- 28) Douglas A. Russell, op. cit., pp.200-210.
- 29) Mary Evans, op. cit., p.135.
- 30) Doreen Yarwood, op. cit., p.13.
- 31) Charlotte mankey Calasibetta, op. cit., p.522.

- 소매 윗부분을 풍성하게 주름잡고 팔꿈치에서 손목까지는 붙는 양다리 모양의 소매.
- 32) Doreen Yarwood, *op. cit.*, p.13.
- 33) Douglas A. Russell, *op. cit.*, p.226.
- 34) 세계문화사, *op. cit.*, p.201.
- 35) Douglas A. Russell, *op. cit.*, p.246.
- 36) 복식사전, 라사라, 1992, p.264.
퍼프소매의 일종.
- 37) *Ibid.*, p.262.
팔꿈치를 중심으로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볼록한 소매.
- 38) Phyllis Tortora, *op. cit.*, pp.192-193.
- 39) 세계문화사, *op. cit.*, p.202.
- 40) Douglas A. Russell, *op. cit.*, p.285.
- 41) 유태순 역, 의복의 언어, 경춘사, 1986, pp.203-206.
- 42) James Laver, *Costume & Fashion*, Thames and hudson, 1995, pp.162-163.
- 43) C. Willett Cunnington, *English Women's Clothing in the Nineteenth Century*, Dover Pub., 1990, p.18.
- 44) *Ibid.*, p.192.
- 45) 정태용, *op. cit.*
- 46) 구미지, *op. cit.*, pp.315-323.
- 47) Marilyn Revell Delong, *The way we look*, Iowa State University Press, 1987, p.48.
- 48) 팔꿈치까지는 풍성한 퍼프를 가지고 팔꿈치에서 손목까지는 딱 붙는 양다리 모양의 소매
- 49) 유태순 역, *op. cit.*, p.55.
- 50) Marilyn Revell Delong, *op. cit.*, pp.24-25.
- 51) *Ibid.*, p.87.